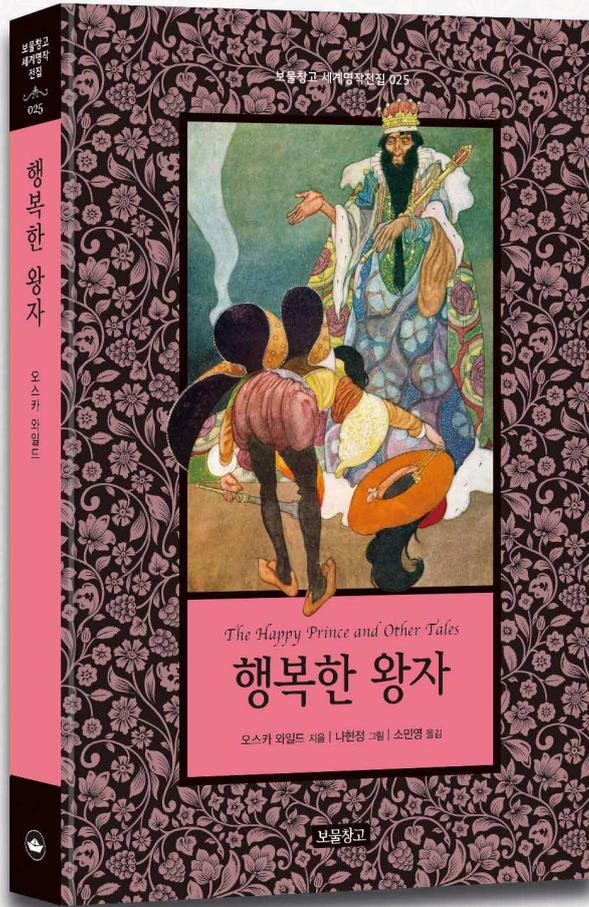


|어린이, 청소년|  
보물창고 세계명작전집 25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 지음 | 나현정 그림 | 소민영 옮김 | 보물창고 펴냄



오스카 와일드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가들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불사해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들이 눈물겹도록 아름답지만 한 것은 아니다. 보물창고 세계명작전집 『행복한 왕자』에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의 잔인함과 추악함, 모순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행복한 왕자』에 녹아든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철학과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 독자라면 누구나 아름답지만 지독히도 슬픈 세상이 지닌 모순을 발견하게 된다. 또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를 키우게 된다.

## 읽기 전 활동

1.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왕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2. 표지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3. 차례에서 제1권에 수록된 다섯 편의 제목을 보고,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떻게 추측해 보세요.

## 읽기 중 활동

1. (나이팅게일과 장미) 나이팅게일과 젊은 학생 중에서 나는 누구와 더 비슷한지 생각해 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써 보세요. 입장이 다른 친구의 글을 비평해 보세요.(모둠을 이뤄 활동해도 좋다. 단, 활동 전 ‘비평’과 ‘비난’의 차이에 대해 분명히 짚어 둔다.)
2. (헌신적인 친구) 내가 생각하는 헌신적인 친구란 어떤 친구인지 써 보세요.
3. (비범한 로켓 폭죽) 비범한 로켓 폭죽의 특징을 정리해서 적어 보고, 진심어린 충고의 편지를 써 보세요.

“제비아, 제비아, 작은 제비아, 하룻밤만 더 머물러 주지 않겠나?”

왕자가 부탁했다.

“친구들이 이집트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내일 이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로 날아갈 거예요. 우기 전 수풀 속에선 화마들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거대한 화장 안 의자에는 뱀은 왕이 앉아 있어요. 뱀은 왕은 밤새도록 별을 바라보다가 햇빛이 뜨면 외마디 탄성을 지르고는 다시 침묵에 잠겨요. 정오가 되면 황금빛 사자들이 몸을 마시러 물가로 내려와요. 사자 눈은 초록빛 에메랄드 같고 오르렁거리는 소리는 폭포 소리보다 우렁차답니다.”

제비가 말했다.

“제비아, 제비아, 작은 제비아, 저 멀리 다락방에 젊은이 한 명이 살고 있단다. 그 젊은이는 지금 원고가 어찌럽게 널려 있는 책상 위에 일드려 있구나. 그 옆에는 시는 제비꽃 한 다발이 곁에 꽃혀 있어. 갈색 고수머리의 젊은이는 식욕처럼 입술이 빨간데, 커다란 눈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단다. 연줄 기에게 보여 줄 희극 한 편을 끝내야 하는데 너무 추워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는구나. 백날코에는 불씨 하나 남아 있지 않고, 몹시 배고픈지 연줄이 창백하단다.”

왕자가 말했다.



4. (어린 왕) 하루아침에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는 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써 보세요.
5. (어부와 영혼) 자신의 영혼까지 버린 어부의 사랑에 대해 함께 토론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 읽은 후 활동

1. 표지 그림은 어떤 작품의 어떤 장면인지 떠올려 보고, 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고 상상해서 썼던 글과 비교해 보세요.
2. 오스카 와일드는 아름답고 우아한 문체로 당시 상류층의 위선과 타락을 비판했어요. 『행복한 왕자』에 수록된 아홉 편의 작품 중 한 편을 골라 작가가 비판한 부분을 찾아 표시해 보세요. 또, 읽기 전 활동 3번과 비교해 관점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3. 직설적인 비판보다 때로는 반어법이나 역설법을 사용해 표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위 2번의 활동에 이어, 반어법과 역설법 등을 사용해 비판의 대상을 비판하는 글을 써 보세요. (만평 또는 그림도 좋다.)

있다. 기인은 이제 겨울이 싫지 않았다. 겨울이 와야 몸도 잠을 자고 꽃들도 편히 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기인이 깜짝 놀란 듯 두 눈을 비비며 밤을 다시 내다보았다.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정원에서 가장 추미진 곳에 있는 나무가 하얀 꽃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다. 금빛 나뭇가지에는 은빛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아주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기인이 사랑하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기인은 너무 기뻐서 계단을 성큼성큼 뛰어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정원을 가로질러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 앞에 선 기인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누가 너를 다치게 한 거니?"

기인이 물었다.

아이의 양 손바닥에는 못 자국이 나 있었고 작은 발에도 못 자국이 뚜렷했다.

"대체 누가 너를 아프게 했니? 어서 말하면, 내가 가서 큰 칼로 그놈 숱등을 끊어 놓을 테니까."

기인이 외쳤다.

"그러지 마세요. 이건 사랑의 상처예요."

아이가 말했다.

"너는 누구니?"

